

## 오피니언

## 금남로에서

김우성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일대 조세혁명을 단행해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내도록 하겠습니다.(중략) 이중과세와 도로포장, 초등학교 육성과 폐지 등 내 공약에 모두 600억 원이 필요합니다. 현 국가 예산 5200억 원의 1할5부만 절약해도 750억 원이 나옵니다. 현재 재벌과 결탁해 면제해준 세금만 1200억 원입니다. 이를 거둬들이면 공약을 실천하고자 돈이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 DJ 같은 지도자 왜 없나

1971년 대선에 나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총단공원 연설이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낱낱이 밝히고 있다.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으리라. DJ는 박정희 후보를 맞아 관권·금권선거에 밀려 비록 근소한 표차로 졌지만 이를 통해 일약 거물 애당 지도자로 급부상했다.

새삼 40년전 얘기를 꺼내는 것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날치기 통과,

수도권 위주의 부자 중심 정책, 영남·관중 인사 등 정부의 잇단 실정에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도 민주당이 애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또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의 민생 해결책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DJ와 같은 지도자가 나

안풍에 날려간 민주당의 존재감  
〈安風〉

오지 않는 점이 안타까워서 이기도 하다. 모름지기 강한 애당의 존재만이 위대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변의 진리다. 하지만, 우리의 제1애당인 민주당의 현실은 어떠한가. 잘못을 바로잡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여당마저 대통령을 향해 쇄신을 요구하며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애당의 이런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는 사이 안풍(安風·안철수 현상)에 휩쓸려 서울시장 후보조차 둘내는 등 존재감마저 상실했다. 그동안 당의 기반이었던 2040세대(20~40대)들이 새

자자-국가소송제도)에 지나치게 얹매인 나머지 막무작 반대로 일관한다는 인식만 심어주다 날치기당하고 말았다. 농축산업, 중소기업 등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면밀히 분석, 비판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강한 애당 없는 훌륭한 정부는 없다. 민주당은 국민 모두가 정부와 여당을 끊임 없이 긴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애당의 탄생을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년 총선·대선에서 '2040'을 비롯한 국민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로운 소통 대안을 찾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위기는 민주당이 자초했다. 이들의 자리에 편승했을 뿐 끌어안는 데는 소홀했다. 등록금·일자리·주거문제 등 비전 없는 절망적 삶이 그 요체다. 지금이라도 이들과 소통하고 욕구 해결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또 정책과 비전 제시보다는 정부와 여당의 패착에 안주해왔다. 선거 때마다 애권 단일화만이 승리라는 맹신에 매달려 정책 대결을 외면했다.

한미FTA나 애권통합 문제도 담담히 않은 대목이 많다. 한미FTA의 경우 ISD(투

만 볼두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게 뻔하다. 오죽했으면 박준영 전남 지사가 지도부를 겨냥, 폐권주의에 빠졌다며 정신 차리라는 주문을 했겠는가.

##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야

민주당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명하다. 우선 통합문제를 조속히 매듭 짓고, 지지율이 당선 가능권까지 치고올라갈 수 있는 대선 후보를 빨리 띄워야 한다. 안철수 교수처럼 국민에게 신선한 강동을 주거나, DJ처럼 국민의 가슴을 울릴 공약을 제시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면 금상첨화일 게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 결속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하는 게 길선무다.

정책 정당으로의 면모를 알신시키고, 능

력있는 새 인물 영입에 정성을 쏟으라는 얘기다. 국민 앞에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일지, 무엇이 부족한지, 지혜를 모아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할은 민주당이 지금 부여받은 시대적 사명이다.

강한 애당 없는 훌륭한 정부는 없다.

민주당은 국민 모두가 정부와 여당을 끊임

없이 긴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애당의 탄생을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년 총선·대선에서

'2040'을 비롯한 국민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논설위원〉wskim@kwangju.co.kr

## 시설

## 조선대 총장 사퇴 대학 안정화 계기 삼아야

전호종 조선대 총장이 총장 임명을 둘러싼 학내 갈등 종식을 호소하며 28일 전격 사퇴했다. 14대 총장으로 임명돼 입기를 시작한 지 불과 18일 만이다.

전 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학 발전을 위해 총장선거에 출마했듯이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총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 총장은 또 자신의 사퇴를 계기로 구성원의 학회과 학교 도약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대는 이번 총장 사퇴를 모든 구성원이 그동안의 갈등과 반복에서 벗어나 대학 안정화를 도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 대학은 무한경쟁시대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우수 학생 유치에 열을 끌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학내 분열상만 보여서야 되겠는가.

또한 총장직선제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직선제 폐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지역의 명문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잇따른 여수산단 정전사태 근본대책 없나

여수산단 내 여천NCC 제3공장에서 27일 정전사고가 발생해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여천NCC 측은 구내 전기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해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정상화 기준은 30일끼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고로 수백억 원의 매출 손실은 물론 수출·내수 물량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문제는 여수산단의 정전사고가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월과 10월에 이어 올들어 세 번째다. 2006년 4월과 5월, 2008년 5월에만 두 차례 등불과 5년 사이 7번이나 발생했다. 정전사고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여수산단은 대규모 장치산업들이 밀집해 있어 전기가 1초라도 끊기면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하다. 사고 후 전기를 공급 받으려면 최소 24시간이 소요되고, 정상 가동까지는 3~4일이 걸린다. 게다가 파이프 라인에 남아 있는 중간 제품들을 모두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그만큼 크다.

여수산단은 보안 등급이 가급인 국가 주요 시설이다. 그런데도 정전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은 후진국형 인재(人災)나 다른 없는 일이다. 사후 대책이나 관리가 치밀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정부와 한전은 사고 발생 때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물거품 되지 않았는가.

여수산단은 협력업체로 공급하는 주요 발전소와 변전소가 5곳 있지만 공급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입주업체로 연결되는 선로 중 한 곳에서 이상이 발생해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시스템 개선을 위한 송전선 복선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 소재도 가려야 한다. 한전과 입주업체, 산업단지공단 등도 정전사고를 막기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1965년 서울대학교 종양도서관 열람

과장 백린은 규장각 도서를 정리하다가 한 장의 서류를 발견한다. 한일합방 직후인 1911년 5월 11일자로 일본 궁내부 대신 와타나베가 조선 총독 데라우치에

게 보낸 서한이다.

이 서한에는 ‘초대 통감인 이토

부미가 일본으로 가져온 책들이 일본

궁내성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일

본 왕족과 귀족의 실

록을 편집·수정하기

위해 필요하니 이를

도서들을 아예 양도해

달라.’라는 내용이 담

겨져있다.

이토는 이 서한에

나온 77부 1028권의 책을 1907년 7월께 규

장각에서 대출받은 것

으로 보이며, 여기에

는 최치원의 ‘계원필경’, 이수광의 ‘지봉

유설’ 외에도 ‘퇴계언행록’, ‘충무전서’,

‘우암집’처럼 소중한 보물들이 다수 포

함되어 있다. 물론 이를 책 가운데 대부

분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환

되지 않은 상태다.

국제적으로 전시회 출품이나 연구 또

는 복구의 목적으로 특정 국가의 영토

/총영사장 redplane@kwangju.co.kr

## 기고

## 새마을금고 패러다임 전환 시급하다

고기우

1963년, 경상남도에서 5개의 조합으로 출범한 새마을금고는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장족의 성장을 이어오면서 ‘서민의 금고’, ‘서민의 벗’이라는 애칭답게 주민의 생활 혁신을 가로챈 곳에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전국적으로 2천여 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그 친근한 이름으로 동네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으며, 종·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영세 사업주 등에게는 항상 든든한 ‘금융의 울타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렇듯, 서민과 중산층에게 든든한 생활의 베풀목이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협동

조합의 원리에 의한 신용사업, 공체사업 등 생활금융과 문화복지후생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물론 지역사회 발전 및 국가 경제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양적 광창도 엄청나다. 1980년 대비 2011년 현 회원 수는 840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늘었고, 자산 또한 약 5000억에서 90조 8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 중 광주·전남지역 새마을금고의 양적 인 성장은 실로 눈부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현재 금고의 수는 108개에 달하고 그 자산 또한 5조 900억 원에 이르러, 실제적으로도 시·도 지역민의 생활경제 및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오랫동안 새마을금고와 인연을 맺고 있는 필자는 금번하는 금융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원론적인 금고 운영의 투명성, 직원들의

끊임없는 자정(自淨) 노력 등을 물론 그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직무역량강화가 최우선 되어야 하며, 더불어 새마을금고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기초단체(시·군·구) 금고 업무에 새마을금고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가 나고 있는 스브랜드 가치 제고 그리고 소재 구조 조정 전환화 등 4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액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저렴한 전기·수도·가스·인터넷 등 기본적인 생활必需를 확보하는 등 회원과 함께하는 창조적·친환경적 금고로 발전할 때, 새마을금고는 다시 한 번 희망찬 도약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민주당 광주시 동구 청년위원장〉

## 도매업자 발떼기 거래 약속 위반, 농민 피해 많다

지난 봄에 친환경 농산물로 쌈채를 재배하면서 그걸 납품하는 도매업자로부터 전량 사주겠다는 말을 믿고 재배를 하셨던 모양이다. 일종의 계약재배 같은 거였는데 흔히 말하는 발떼기식으로 하신 것이다.

하지만 농약도 안 하고 비료도 안 주면서 오로지 친환경 농산물로 최고의 쌈채를 생산해 냈지만 얼마 전 가을에 이 도매업자는 요즘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가 어려워나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발떼기 작물을 수확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업자와 계약서를 쓰신 것도 아니고, 발떼기 거래에 관해 문서작으로 아무런 증거도 남기게 없어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문서로 계약해야 나중에 이 업자들이 판소리를 못하는 걸 알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건, 민족, 민족 등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 光州日報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면접부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경부	체육팀	